나의 죽음 생산 공장

(출38:1~31)

1.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 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2.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3.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4.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5.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꿸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6.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7.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메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8.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번제단과 물두멍이 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9-20절까지 언급이 되고, 21-31절까지는 성막제작을 위한 재료의 목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으로 <나의 죽음 생산 공장>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나의 죽음 생산 공장'

공장(工場)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설비를 갖춘 곳입니다. 그 물건이 대부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건들로 심지어는 장의사 물품조차도 삶의 마지막 단계의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온전하게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 위한 것인데,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는 이상한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내가 죽고 나면 삶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만 가지 물건들이 날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내 삶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있어야 될 것은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선민들에게는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즉시로 선민 됨 자체가 중단되고 맙니다. 선민 됨이 중단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

계가 단절된다는 것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하는 동안에도 내 죽음이 생산되어서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가 선민의 삶을 진행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이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어야 하고 내 죽음이 계속해서 공급돼야만 합니다. 이 내 죽음 생산 공장은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내 죽음이 생산돼서 공급되지 않으면 정말 죽습니다.

오늘 “성막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의 내용과 성막 뜰의 내용의 완성이 십자가로 주님이 달려서 죽으신 사건인데 이 간단해 보이는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는 얘깁니다. 오늘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은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서 내 죽음이 생산되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장이라면 기계나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핵심장치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상번제가 드려지는데 1년 된 어린 양으로 아침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집니다. 각자 흩어져 살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착이 됐을 때는 가나안에 살고 있었을 때로 전국에 흩어져 살았을 때도 아침저녁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내 죽음을 생산해내지 않으면 선민 됨이 끊어집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아침저녁으로 계속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일을 일평생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나 성막 뜰에 와 있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 대신에 양이 죽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죽음이 생산되고 있는 공장에 마음을 보내서 내가 양과 같이 죽습니다. 몸은 갈릴리 해변에 있어도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 와 있어서 번제단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 죽음 생산 공장 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갈릴리 해변으로 오십니다. 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오시는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내 죽음 생산 공장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핵심적인 장치에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가 어제 말씀에서 언급이 됐어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유명하고 탁월한 심리학자도 해내지 못할 만큼 단순하면서도 정교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인간의 인격은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이 인격으로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성막 본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마음 안의 공간입니다. 지성소라는 공간 안에는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하는 대상이 들어가 있고 성소에는 지정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지정의 활동은 전

부 지성소에 들여놓은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정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요약하고 간략하게 보여주시는데 진설병으로 배부름(만족)을 위한 활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등대는 판단과 생각과 말의 바름으로 밝음이고 옳음입니다. 옳은 생각과 옳은 말과 옳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므로 등대로 보여 주십니다. 이 모든 판단과 배부름이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사랑의 대상과 종합되고 연결이 되냐면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지성소에 돈을 들여놨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배가 부르므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쫓아가는데 그래서 날마다 돈, 돈, 돈, 하는데 이게 분향단에서 향이 24시간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 안에 다른 것들 승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승진만 골똘하게 집중해서 생각하는데 분향단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사람은 성막의 모양으로 구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은 그 마음의 지성소 안에 첫 번째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선민이냐 이방인이냐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죽음을 생산해내는 핵심장치인 번제단에 어떤 재료를 집어넣어야 내 죽음이 생산되느냐?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들여놓은 재료를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내 죽음이 올바르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으로 걱정이 가득하게 될 때 이방인이라면 걱정을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선민은 내 마음의 인격전체가 사업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도 걱정도 계획도 의도도 느낌도 모든 감정도 다 사업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고 번제단의 핵심장치위에 올려놓고 태워 죽여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 죽음을 생산해낼 때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은 상태를 싫어해서 하나님 이외의 것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죽일 때 '내가 너의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지면서 완성이 되고 십자가가 핵심장치예요.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공장의 핵심장치로 끊임없이 내 죽음을 생산해내서 우리가 쌀을 공급받고 옷을 공급받고 두부를 공급받고 콩나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죽음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 죽음을 공급받기 위해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나의 마음 나의 인격이 재료가 돼서 내 죽음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나의 죽음입니다. 선민 전체의 각자 각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린 양이 죽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을 통해서 내 죽음을 생산해냄으로써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내 마음 안의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성막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물두멍” 얘기가 한 절 나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물을 담아두는 큰 놋그릇으로 밑에 받침대가 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레위지파의 여자들인 모양입니다. 옛날에 거울은 지금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전부 청동이나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내 죽음 생산 공장의 또 다른 장치로 여자들이 거울을 포기해 버린 것인데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재를 치우고 할 때 오염이 되는데 물두멍에서 씻고 성막에 들어가서 등대를 관리하고 향을 피웁니다. 불결을 씻는 외에 제사와 연관한 기능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제작되었는가만 언급이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에밀레종을 만들 때 아기를 쇳물에 넣어서 만들었다는 속설로 종을 칠 때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멀리멀리 퍼져나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거울은 거의 준 생명이 아닙니까? 명동에 나가서 여자들의 핸드백을 조사하면 거울이 없는 여자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할머니 핸드백 속에도 거울이 있을 것이에요. 남자들은 거울이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을 걸요? 여자의 특징 중의 특징이 거울이고 여성성의 상징이 거울인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떠나보내는데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나의 외모보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여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들의 일이지만 선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자기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 바라보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꿨다는 얘기로, 물두멍이 뜻하는바 여자들이 거울을 바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얼굴표정이 내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여자들이 옷을 살 때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봅니다. 피팅룸 안에 거울이 있고 밖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거울을 통해서 옷을 입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자가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는 애인이 있다면 그 애인이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렇게 좋아하는 애인이 있어요. 그런 애인이 있으면 함께 갑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거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좋아해서 이 남자가 혹시라도 자기를 싫어할까 겁이 날 정도로 좋아하는 애인을 갖고 있는 여자는 행복한 여자지요. 이렇게 행복한 여자의 거울은 이제 애인인 남자의 얼굴이 거울이 됩니다. 피팅룸에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자기는 괜찮았는데 애인의 얼굴이 시무룩하고 무표정하면 미운 것입니다. 피팅룸에서 옷을 입고 나왔는데 애인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와! 예쁜데.’라고 했다면 자기가 거울을 보았을 때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옷은 100점짜리 옷이 되는 것이지요. 애인의 얼굴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들이 거울을 바쳐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표정이 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는 그 표정이면 그게 내 모습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습이 되느냐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진설병 떡 상이 의미하듯이 하나님만으로 배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배 부르려고 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배 부르려고 하고, 어느 목사님은 지금 천 명인데 천오백 명으로 끌어 올려서 배 부르려고 할 때 나는 삼십 명, 백 명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뻐하셔서 얼굴이 활짝 웃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하나님으로 배 부르려 하는 진설병 떡 상과 등대가 뜻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돈을 바라볼 때 돈이라는 것의 본질이 밝히 보이고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에서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가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돈 많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서울대 들어간 엘리트인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아버지로 배부르고 보니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을 이만큼을 쌓아놓고도 돈을 써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와! 너 예쁘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야,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나가서 네 일 좀 해라.'라고 해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의 예쁜 모습으로 되려면 바로 번제단에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들어 있는 내 마음의 인격 자체가 죽는 죽음을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살다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과 부대끼고 자꾸 내 마음의 지성소 안으로 다른 것이 들어오므로 하루 종일 번제단의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자꾸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죽음을 생산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로 걱정스럽고 근심되고 슬프고 우울하다면 이것을 재료로 내 죽음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반드시 마음의 성소에서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은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던 것으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것도 없었을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참여되었다고 하면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슬픔과 걱정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영

원 전부터 있던 그 기쁨에 참여된 상태에서 만족과 기쁨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므로 다른 것이지요.

그러므로 물두멍이 뜻하는 바는 번제단에서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들어와서 지정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내 인격이 죽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지성소 안에 모셔 들인 성막의 모습이 될 때 피팅룸에서 나온 여자 친구의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예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쁘다.'라고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물두멍의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내 죽음의 생산 공장에 우리의 마음은 24시간 가 있는데 성막 본체와 성막 뜰을 포함한 이 "울타리"로 표현 합니다. 울타리는 우리 마음이 24시간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모습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보시기에 물두멍이 뜻하는 대로 '너! 정말 예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내 죽음의 생산 공장 그 뜰에 우리 마음은 늘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갈3:1절에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셔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실 것이라는 얘깁니다. 내 죽음의 생산 공장이 일 년 내내 아니 죽을 때까지 매일 같이 가동이 되어서 내 죽음이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삶이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이고 내 죽음을 생산해 내는 핵심장치이오니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기분이 좋지 않고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에 나를 재료삼아 올려놓음으로써 내 죽음이 생산되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므로 아름답고 예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